

회색문헌의 종류와 유통

대전산업대학교 도서관
권 선 영

〈 목 차 〉	
1. 회색문헌이란?	4. 회색문헌의 서지 통정
2. 회색문헌의 특징	5. 회색문헌의 유통
3. 회색문헌의 종류	6. 결 언

1. 회색문헌이란?

(가) 역 사

- 1940년대 미국 : 연구성과 보고문에 대해 "Reports literature" 라는 용어를 사용.
- 1978년 영국 York : EEC와 BL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
- 이후 "The Financial Times"에 "Grey literature comes in from the cold"라는 기사 제목에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됨¹⁾
- 1993년 암스테르담 :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개최

(나) 유사 용어

- non-book material(비도서 자료)
- fugitive material(사라져 버리는 자료, 불

들기 어려운 자료, 일시적인 자료)
semi-published(반 출판물)

- non-conventional literature

(비 상업적인 문헌)

- hard-to-get material

(획득하기 힘든 자료)

(다) 정 의²⁾

- "일상적인 구매경로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자료"
- 영국의 British Library : 통상적인 도서관 매 경로를 통하여 즉시 구입 가능한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렵고 또한 구입하기 어려운 문헌
- 프랑스 표준협회 : 상업적 출판과정과 배포경로 그리고 서지 사항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제한된 이용자들만을 위해 활자화되었거나 인쇄된 문헌

1) Perter Auger. "Non-conventional literature: chairman's introduction". Aslib proceedings, v.34 n.11/12 (1982) p. 457

2) 정진화 역. 그레이 文獻 蒐集에 있어서의 問題點. 國會圖書館報. 第31卷 6號 (1994). pp. 71-72

• 독일의 행정관리 용어집 : 출판의 진보는 더욱 더 많은 출판물들이 출판사의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저술, 제본, 출판, 판매되게 하였다. 지금도 많은 행정관리, 과학전문가들이 과학보고서, 계획서, 조사서, 전문기술서, 연보 그리고 학회지 등을 저술하고 있는데 이들은 출판의 형태가 아닌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출판사를 통하지 않은 것

• 한국의 도서관학·문헌정보학 용어사전 : “그레이 문헌 grey literature” - 비공식적으로 발행되었거나 살 수도 없는 반 출판물을 말한다.

따라서 서지 사항을 알기 어렵다.³⁾

2. 회색문헌의 특징

(가) Carroll과 Cotter의 특징⁴⁾

- 신속한 발행
- 다양한 format
- 상업적인 유통경로 부재
- 공식적인 전문가의 평가 부재
- 의뢰기관에 한정배포
- 원시 데이터(raw data)를 다수 포함
- 응용과학·기술분야에서의 빈번한 이용
- 정부 책임 하에 서지 통정과 배포

〈표 1〉 회색문헌의 범주 및 특성

tones of grey	범 주	특 징
light grey	공식적인 보고서 통계문서 표준 Newsletter 법률/입법문서	외부에 보급하기로 예정된 items
	pre-print meeting paper	scientific community가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나 그럴 예정인 paper
medium grey	학위논문 내부 보고서	외부로 보급할 목적이 없고 scientific community가 공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items
dark grey	working papers	추적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고 대개 정보시스템에 기록되지도 않는 items

3) 사공 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86. p. 33

4) Carroll, B.C. and Cotter, G.A. "A new generation of grey literature: the impact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v.13 n.2(1997). pp. 5-14

(나)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의
속성에 따른 범주 및 특성⁵⁾

• 내용(content) : pre-prints나 학위논문 외에는 대체로 전통적인 출판물에 비해 조잡할 수 있으나 오히려 공개된 논문보다 더 현재의 연구주제를 잘 표현하고 더 자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처리(processing) : 서지 통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와 저장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목록과 도큐멘테이션을 위한 도구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는 작업이 필요.

• 유통과 배포(distribution) :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특정 부문의 독자나 연구자를 대상으로 유통/배포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제작부수가 적고 대부분이 비매품이다.

(다) 박은자의 회색문헌 특성⁶⁾

• 접근성(Accessibility) : 해당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수사하기 매우 힘들고 주제 지식이 있는 사서들도 참고도구나 서지 목록, 또는 출판목록에 회색문헌이 수록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추적, 접근하기가 힘들다. 관심있는 분야의 회색문헌 생산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입수가 가능해서 직접적인 자료 구입비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건비가 필요하게 된다.

• 배포(Distribution) : 극히 제한된 소량의 부수를 인쇄하여 비공식으로 돌리거나 기밀 누설을 방지할 목적으로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배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러한 문헌들의 생산여부를 알 길이 없고, 배포의 경우에도 교환 협정 또는 배포 list에 올라있는 제한된 대상에게만 보내지는 비매품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들이 많다.

• 형태(Format) : 회색문헌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전자형태, microform으로 많이 생산되며,⁷⁾ 소책자, 인쇄된 몇 장의 종이를 묶은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일시적인 자료로 소홀히 취급하기 쉬워서 필요한 때에 재발견할 수 없고 복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잃어버린 정보로서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서지 통정(Bibliographic Control) : 소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밀하고 신속하게 배포할 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자료의 질적인

5)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 "인터넷을 통한 회색문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보관리학회, 1997. p. 56

6) 박은자. "그레이 리터러취(Grey Literature)의 중요성". 서울여대 14(1984. 9). pp. 58-59 사공 철 등편.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한국도서관협회, 1986. p. 33

7) 미 국회도서관에 수집되는 모든 보고서의 80% 이상이 마이크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함.

Charles P. Auger. "Use of report literature". London, Butterworths, 1975. p. 24 Carroll, B.C. and Cotter, G.A. "A new generation of grey literature: the impact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Publishing Research Quarterly. v.13 n.2(1997). pp. 5-14

통제가 안되어 있고 각 기관마다 편집 기준이 달라 서지 통정이 힘들게 된다. 또 불규칙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간기가 부정확한 연속간행물일 수도 있고 연속간행물 형태이지만 계속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대체적으로 제목이 길고 단체저자, 공저자물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정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정상적인 목록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사서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료들이다.

•이용자 수(Number of users) : 이용자는 소수이고 극히 제한된 전문 분야 이용자들이지만 매우 값진 정보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 재력을 투자하기를 꺼리게 된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과 연구비를 투자하여 얻은 연구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며 막대한 정보 손실을 면할 길이 없게 된다.

•언어(Language) : 회색문헌은 지역적 특색이 강한 내용을 해당 지역의 언어로 쓰여진 발간물이 많아 도서관에서 국제 통용어나 자국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

3. 회색문헌의 종류

(가)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⁸⁾ :

각종 보고서, 학위논문, conference proceedings, translations, pre-prints, 정부문서, working paper, 각종 통계자료, 수치자료, in house journal, newsletter, catalogue, data sheet, 상품관련 문헌, 회사연감, 시장조사서, 기술조사서, 표준규격

(나) 정진화 역⁹⁾ :

•과학기술 출판물;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회의보고서, 출판사에서 발간되지 않은 토론회와 세미나회의록, 설명이 부가된 박사논문

•비전통적인 문헌; 기업체 내부출판물, 상공회의소, 협회, 정당, 무역협회의 출판물, 비행정관리통계표, 경제속보와 newsletter, 개발계획서와 개발기술 보고서, leaflet, 소책자 등.

(다) 미국의 과학기술연방회의

(Feder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¹⁰⁾ 회색문헌으로서 대표적인 기술보고서를 preprint, proposal, 기관보고서, 계약진행 보고서, 최종 보고서, 주제기술 보고서(저널 기사와 유사), 보고서 형태의 책 (Review 또는 조사서), 위원회 보고서로 유형을 나누고 있다.

8)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 op. cit. p. 56

9) 정진화 역. op. cit. p. 72

10) 신은자. "전자 회색문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1999). p. 83

(라) 산논 장.¹¹⁾ :

- 공식으로 인쇄·배포·발신되는 정부 외의 관공서 자료; 각종 심의회의 등의 보고 서류
- 민간단체·직능단체 자료; 민간 통계자료, 보고서, 기관지, 회보, 업계 동향자료, pamphlet
- 기업발행 자료; 사사, 업계동향자료, 판촉자료, press releases, brochure 등
- 금융기관의 조사월보 자료; brokers report
- 시험·연구기관, 비영리단체 자료; 연구성과 보고서, 활동성과 보고서, 사업연보 등
- 회의·전시회 자료; 예고집, 기록집, 프레젠테이션 설명자료, 배포자료(hand-out) 등
- 일본어판 자료; OECD 보고서(일본경제조사 협의회)
- 영어판(일영 함께 적음판, 외국어판)자료; 해외 홍보자료(Facts & figures) 등
- 기업체 부설 경제 연구소 자료; 시장동향조사, 기술동향 조사
- “기보” 종류; R&D 활동성과 소개 자료 등
- 연구·조사 자료; 과학 연구비, 과학기술진흥 조정비, 기계공업 진흥 보조금 등
- 기타; 명부, Catalogue, Manual, 사양서, 규격안 등

(마) Carroll and Cotter¹²⁾ :

- 기술관련 video tape(technical video tape)
- Multi-media productions
- Scientific visualizations
- 위성통신 data
- 기술보고서
- 환경감시자료(Environmental monitoring data)
- 환경안전 및 보건규정: 미국자료 아닌 것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Non U.S)
- 표준 : 미국자료 아닌 것
- Vendor catalogs
- 정책 백서
- 특허
- Newsgroups
- LISTSERV
- FTP
- WAIS
- 전자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s)
- 전자도서관

(바) 대학의 자체 생산물 :

- 1) 교내 출판물
 - 가) 강의 관련 자료 : 강의계획서, 강의평가 자료, 교재
 - 나) 학과(목)별 자료: 수업내용 Encoding

11) 산논 장. “기업에 있어서의 정보 수집과 Gray Literature”. 평성11년 대학도서관 장기연수 프로그램(1999)

12) Bonnie C.Carroll & Galdys A. Cotter. “A New generation of grey literature: The Impact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13-15, Dec.,1993.)

한 자료

다) 교내기관 자료: 요람, 학생생활안내, 홍보자료, 출판사 발간자료, 부설연구소자료
 각종 위원회 관련 보고서, 세미나 자료

라) 요람, 학생생활안내, 홍보자료

- 2) 가상 강의 내용
- 3) 소장하고 있는 Paper 형태 자료의 목차 및 초록 DB
- 4) 주제별 Meta Data 자료의 Digitize
- 5) 도서관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출판물
- 6) 도서관 Home page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
 (예: 공지사항 및 이용안내, A & Q, Online Reference Service 최종 결과내용 등)
- 7) 각종 연구 결과물(예: 별쇄본 논문, 학위 논문, 공모전 입상 학술자료)
- 8) 교내 역사 자료(예: 고문서, 대학사료, 사본, 향토자료, 회귀서)
- 9) 공문서 및 각종 규정
- 10) 졸업앨범
- 11) 교내행사 및 교내 유치 행사자료

4. 회색문헌의 서지 통정¹³⁾

회색문헌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출판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 문헌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논한다는 것은 역설적일 수도 있지만 배포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정리 과정에서의 일치는 반드시 도입되

어야만 한다. 회색문헌에서의 표준화 규정은 아래 3가지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가) 검증규정(Identification Rules)

저자가 문헌을 쓸 때 표현규정(Rules of Presentation)을 따라야만 한다. 현존하는 표현 양식의 표준화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SO 5966 : 문헌-과학기술보고서 표현양식

ISO 7144 : 문헌-논문, 연구과제물 표현양식

ISO 2384 : 번역물 표현양식

이 표준화는 저자들이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ISO: 일반화된 활자지정 언어표준)이라는 문서구조 표준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문서처리 소프트웨어를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회색문헌을 검증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정리규정(Processing Rules)

정보전문가들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정리규정의 표준화는 보고서에 사용할 목록 규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문헌이 단행본, 정기간행물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문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제표준 보고서번호(ISRN: International Standard Report Number)의 최근 계획안은 보고서의 서지 판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으며 프랑스

13) 정진화 역. op. cit. p. 76

에서는 INIST에서 표준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5. 회색문헌의 유통

(다) 배포규정(Dissemination Rules)

문헌의 형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박사논문, 특허자료, 표준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회색문헌으로 취급되었던 문헌 가운데 일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되고 있는 반면에 다소 판정이 어려운 문헌은 수집기관이 설립되어 있더라도 유통 경로조사가 쉽지 않다.

(라) 보고서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반적으로 목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인명이지만 회색문헌의 경우에는 단체명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서 번호는 서지 정보 파악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 과학기술정보위원회(COSATI); 접근번호, 단체명, 표제, 기술노트, 인명, 날짜, 페이지, 계약번호, 보고서번호, 입수노트.¹⁴⁾

• Auger¹⁵⁾; 단체명 기호, 관련 주제 기호, 보고서 형태 기호, 날짜 기호, 보안 분류 기호, 자판에서 부여할 수 있는 추가 데이터 기호, 보고서가 갖는 개별 기호, 조직체의 소속을 나타내 주는 기호

회색문헌이 상업적이지 않은 유통경로를 선택하는 이유는 월간 또는 격월간 이상으로 간행되는 출판의 간격이 연구기간과 비교하여 너무 길다는 점, 저자들은 그들의 보고서가 단지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흥미가 있어 상업출판물로 취급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체출판물의 출판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복사기술과 사무자동화 기기의 발달로 굳이 출판사를 통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¹⁶⁾

정보기술의 발달은 회색문헌의 유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집과 배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전자전송을 통한 최신자료의 배포와 회색문헌을 생산·수집·제작을 한 곳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한 기관끼리 모여 수요와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한다.

(가) 국외¹⁷⁾¹⁸⁾

(1) 유럽회색문헌정보시스템 (SIGLE)

유럽에서는 회색문헌의 수집, 서지 통정, 검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국의

14) Peter Auger. "Information sources in Grey literature". 3rd. ed. London, Bowker-Saur, 1994. p. 41

15) *ibid.* p. 39)

16) 정진화 역. 그레이 文獻 蒐集에 있어서의 問題點. 國會圖書館報. 第31卷 6號 (1994). pp. 72

17) 신은자, "전자 회색문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6권 제3호(1999). pp. 88

18)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자료실. "유럽회색문헌정보 시스템「SIGLE」". 정보관리연구. v.25.n.4 (1994). pp. 86-90

BLDSC와 유럽공동체위원회(CEC: Commission of the EC)가 주축이 되어 1978년 유럽회색문헌정보시스템(SIGLE: System for Information on Grey Literature in Europe)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고, 1985년 CEC의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 EEC의 재정지원을 얻은 유럽회색문헌개발협회(EAGLE: European Association for Grey Literature Exploitation)를 형성하여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40%, 논문 약 25%, 기타 35%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갱신되며, 기술(31%), 자연과학(26%), 생물학과 의학(14%), 경제와 사회과학(29%)을 포괄하는 복합데이터베이스로서 유럽에서는 온라인 호스트인 BLAISE를 통하여,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STN International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EAGLE은 "SIGLE"을 기업경영 차원에서 상표로 등록하였고, 1990년 말 현재 약 22만 5천 건의 문헌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연간 약 3만5천 건의 레코드가 추가되고 있다.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분야는 1980년부터 수록되어 있고, 경제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분야는 1984년부터 수록되어 있다.

SIGLE의 장점은 유럽공동체위원(CEC)의 초기 재정지원은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더욱이 CEC가 개입함으로써 초기에 참여를 염려했던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데에 성공하였고, 초기단계에서 효율적인 운영구조를 수립하였으며, 또한 정책 결정이나 기술적인 목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적절하게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SIGLE의 단점은 참여기관들이 동등하게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관마다 재정지원의 차이가 있었고, 입력에 있어서도 영국은 전체 중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반하여 벨기에와 같은 분산시스템인 국가에서는 입력이 지연되었다. 영국의 SIGLE 센터인 BLDSC는 모든 주제 분야의 각종 회색문헌을 수집하고 제공하는가 하면, 프랑스의 참여기관인 INIST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보고서 이외에는 꺼려하는 편이고, 독일의 경우는 사회과학 분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AGLE이 일개 국제적인 협력의 모델로서 평가받기에는 무리인 점도 있지만 건전한 재정 기반과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가진 확고하고 탄력있는 조직임에는 분명하다. 협회의 기존 회원들이 그들 국가의 문헌입력과 제공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수행한다면, 그리고 기타 국가들도 자원을 확보하여 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스템은 점점 강력하게 될 것이다. 유럽 지역 이외의 국가들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EAGLE의 회원은 정보와 문헌제공을 하는 주요한 연구소들로 유럽의 9개국을 대표하는 10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벨기에 : LABORELEC-UCL/BSE
- 프랑스 : CNRS-INIST
- 독일 : RachInformationszentrum Karlsruhe GmbH
- 영국 : The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

• 이탈리아 :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Biblioteca Centrale

• 룩셈부르크 : Biblioth`eque Nationale(국립도서관)

• 네덜란드 : Koninklijke Bibliotheek

• 스페인 : Centre de Informacion y Documentacion Cientifica

• 아일랜드 : 영국을 통해서

(2) 미국 국가기술정보센터:(NTIS)

상무성에 의해 설립된 국립기술정보서비스(NTIS: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는 미국과 해외에서 진행중인 R & D, 경제와 공학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관련한 초록들을 연간 약 15만 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기관과 연결하여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NTIS DB에는 정부 각 부처의 보고서들이 주로 실리는데 97년 현재 270만 건 이상 축적되어 있고, GRA & I(Government Reports Announcements and Index)는 NTIS가 수집한 연구보고서를 38개 주제분야로 분류한 초록지로서 키워드, 개인저자, 공저자, 계약번호, NTIS 입수번호 혹은 보고서 번호로 색인되었으며, 여기서 검색된 초록번호로 접근할 수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과 CD-ROM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더불어 Monthly Catalog, NTIS Title Index와 Retrospective Index가 발행

되고 있다.

항공우주국(NASA: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dministration), 공군해외항공과학기술 연구센터(FASTC: Air Force Foreign Aerospac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에너지성(DOE: Department of Energy), 교육 정보센터(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정부간행물출판국(GPO: Government Publishing Office)과 같은 기관은 NTIS와 같이 관련분야의 Clearing house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연구보고서가 NTIS에 수집되는 양은 1993년까지 평균 총 67%의 입수율에서 1994년에는 42%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¹⁹⁾,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정보원에서 1974년부터 미국 NTIS의 연구보고서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²⁰⁾

(3) 일본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 (JICST)

일본은 JICST(Japan Information Center of Science & Technology)의 JOIS (Japanese Online Information System)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관련 회색문헌을 수집해 영문화 작업을 거쳐 DB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JICST-EPLUS와 JGRIP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STN International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기술보고서, 정부문서, 회의자료 뿐 아니라 연속간행물 게재 논문, 진행중인 연구정보도

19) 이정연. 연구보고서 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1995. p. 22

20) Ibid. p. 13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일본은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회색문헌에 대한 접근이 면밀히 수행되고 있지만 언어장벽과 국가 자체의 문헌접근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해외배포가 제한되어 있다.

(4) 네덜란드(GreyNet)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운영하는 GreyNet (The Grey Literature Network Service)²¹⁾은 회색문헌 분야에서 저자, 연구자, 사서, 정보중개업자의 작업을 촉진하고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제협력의 증진, 훈련 및 협의기구 결성, 연구 결과의 출판, 정보 소개, 세계적인 기반의 구축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GreyNet은 개인, 조직, 회색문헌 분야의 생산물과 서비스에 관한 서지, 기록, 사실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

GreyNet의 Website 구성은 아래와 같다.

- What' new : press releases, newsletters, events calendar
- About : GreyNet 소개, Grey Literature 설명, 회색문헌 관련 Link, 가입방법, 용어집
- Join : 회원가입 소개
- Events : Grey Literature 관련 세미나와

conference 안내

• Publications : conference programs & abstract, papers & bibliography, 회색 문헌 관련 인사 및 기관, 용어집, IJGL(International Journal on Grey literature)

• Databases : GL-Compendium²²⁾, 서지류, 회색문헌 관련 인사 및 기관, 용어집, 두문자 사전, IJGL.

(5) 기타

가) 프랑스

과학연구부와 공동으로 총리실에서 공공행정을 위해 출판된 비상업적 출판물들을 수집, 기술(記述), 공개하는 시스템을 조직하도록 행정관리문헌협력위원회(CCDA : Co-ordination Commission of Administrative Documentation)에 요청하였다. 이 사업은 기관에서 제작되었거나 요구되는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 문헌목록에 사용되는 명백하고 독특한 기술(記述)을 위해서 불가결한 요소들을 수집하는 것, 국민이 이러한 문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1991년 9월부터 8개의 자원부서와 이러한 형태의 문헌을 수집하고 있는 프랑스 문헌보관소(Documentation Francaise) 및 국립과학기

21) <http://www.greynet.org> (2000. 8)

22) GL-Compendium은 사업, 경영, 경제 분야의 회색문헌 collections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학계, 정계, 모든 영역의 기업, 비정부기구, 비영리 단체 등에 소속된 연구자와 정보 전문가에게 유용할 것이다. GL-Compendium은 어떤 회색문헌 collections이 존재하는지, 소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지, 보관되어 있는 문서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 op. cit. p. 56

술정보연구소(INIST: Institut National de l'Inform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등 2개의 소관부처가 GRISE LI로 명명된 이 사업을 행하여 왔는데 이는 프랑스의 모든 행정 부처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나) 이탈리아

1992년 6월 로마에서 회색문헌에 관한 국가회의를 가졌으며 이태리도서관협회의 회색문헌 수집, 표준화, 이태리어로의 번역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문화부와 대학과학연구부의 지원 하에 SBN, 국가도서관 서비스, 건강연구소의 공동노력으로 생물학 분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일반문헌과 회색문헌이 통합되어 있다.

다) 러시아

러시아는 회색문헌 종합목록을 발행하고 있는데 러시아어로 출판되며 최근 약 10만 건의 참고문헌을 수록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다른 공화국들도 이 목록작업에 협조하고 있다.

라) 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을 위한 주요 정보들을 회색문헌에 수록하고 있으며 시에라리온,

수단, 베닌, 레소토, 세네갈, 보츠와나 그리고 짐바브웨와 같은 국가에서는 회색문헌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마) 독일

Technische Informations Bibliothek(TIB)가 과학기술분야의 회색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FIZ Karlsruhe는 이들을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국내

-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학술정보 (KERIS: Riss 4U)²³⁾
- (2) 전문정보센터(Clearing house)
- (3) 한국과학재단²⁴⁾
- (4) 산업기술정보원(KINITI-IR)²⁵⁾
- (5)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Kristal-2)²⁶⁾
- (6) 삼성경제연구소(SERI21)²⁷⁾

(다) 이외의 회색문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

- (1) 각종 과학기술정보가 수록되어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 (2) 과학인용문헌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

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2000.8\)](http://www.riss4u.net/(2000.8))

24) 한국과학재단: [http://www.kosef.re.kr/\(2000.8\)](http://www.kosef.re.kr/(2000.8))

25) 산업기술정보원 : [http://www.kiniti.re.kr/\(2000.8\)](http://www.kiniti.re.kr/(2000.8))

26) 연구개발정보센터 : [http://www.kordic.re.kr\(2000.8\)](http://www.kordic.re.kr(2000.8))

27) 삼성경제연구소 : [http://seriecon.seri.org/\(2000.8\)](http://seriecon.seri.org/(2000.8))

(3)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관련 문헌 및 목록

(4) 국제번역물센터(International Translations Centre)의 세계번역물색인(WTI : World Translations Inde) 데이터베이스

(5) UMI(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에 의해 미국에서 편집되고 출판되는 논문초록집(Dissertations Abstracts)과 같은 논문 데이터베이스

(6) 출판 중이거나 출판준비 단계의 보고서들로 이루어진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7) 연간 보고서나 재정 보고서와 같은 기업관련 정보

6. 결 언

회색문헌에의 접근과 연구는 항상 도서관 사서와 문헌전문가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어왔고, 비전형 정보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도서관 사서와 문헌전문가의 업무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연구자들은 빠른 정보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위해 여러 가지 전자출판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그들의 연구결과를 속속 교환하고 있다.

그래서 회색문헌의 생산 행태는 정보를 신속하게 배포하는 매력적이며 편리한 방법이 되고 있어 회색문헌에 대한 정의와 접근방법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지식정보

〈표 2〉 분야별 전문정보센터

분 야	센 터 명	운영대학	URL
수 학	수리과학정보센터	과학기술원	http://mathnet.kaist.ac.kr
물 리 학	물리학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http://icpr.snu.ac.kr
화 학	무기화학연구정보센터	충남대학교	http://chemwave.chungnam.ac.kr
지구과학	환경지질정보센터	연세대학교	http://ysgeo.yonsei.ac.kr
생명과학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포 항 공 대	http://bric.postech.ac.kr
농 수 산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http://aginfo.snu.ac.kr
의학(보건)	보건연구정보센터	전남대학교	http://hric.chonnam.ac.kr
약 학	의약품연구정보센터	숙 명 여 대	http://dric.sookmyung.ac.kr
전자공학	자동화기술연구정보센터	서울대학교	http://icat.snu.ac.kr
기계공학	산업공학연구정보센터	포 항 공 대	http://cimerr.postech.ac.kr
재료공학	재료연구정보센터	경북대학교	http://icm.kyungpook.ac.kr
화학공학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	고려대학교	http://infosys.korea.ac.kr
계	12개 센터	9개 대학	

의 생산과 유통, 이용으로 이루어지는 information life cycle이 짧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연구자들에게는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입수가, 중요한 연구활동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에서는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가 어떤 정보이며 그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과거 단행본, 학술잡지, 논문 등 도서관 입장에서 구하기 쉽고 정리가 수월한 전형적인 자료만 가지고 운영을 하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도서관 운영에서 벗어나,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기반 활동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회색문헌과 같은 비전형 정보들도 수용하여 다양한 정보가 필요해진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과 이용이 한자리에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전부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회색 문헌이다. 언제 어느 때든 발생될 수 있는 자료이고 모든 자료를 구할 수 없는 한 회색문헌은 언제이고 존재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열의를 가지고 찾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우며 전문정보를 다루고 있는 이용자의 요구에 관심 갖지 않으면 경로를 찾기 힘든 것이 회색문헌이라는 것을 알고 도서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수집해야 한다.

7.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8. 별첨 :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 Korea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의²⁸⁾ site map

28) <http://www.kordic.re.kr> (2000. 8)